

장성군, 상무대 급식 관계자들과 간담회 가져

상무대와 협력 발판 삼아 농업 발전 가속화

장성군과 상무대가 상생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군은 최근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계화학교, 공병학교, 근무지원단, 57정보통신대대 등 상무대 급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첨단 장성로컬푸드직매장 2층 교육장에서 열린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장성군 역점사업을 공유하고, 상무대 급식사업과 지역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7월 준공 예정인 장성군 공공급식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장성산 먹거리가 상무대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장성군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를 학교, 복지시설 급식 등에 공급하는 통합물류시설이다. 장성 지역 농산물 공급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성군에 위치한 상무대는 3만 5천여 명 규모의 육군 최대 군사교육 시설이다. 발생하는 급식 수요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간담회를 마친 상무대 관계자들은 장성군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운영계획을 청취했다. 이어서 삼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삼서농협 군급식로컬푸드지

원센터를 찾아 산지에서 수확한 먹거리가 위생적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참관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7월 준공 예정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업인에게는 판로를 열어주고, 군부대에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상무대와의 적극 협력을 발판 삼아 농업 발전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중 기자

‘나주애배움바우처’ 사용기관 모집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시민의 보편적인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인 ‘나주애배움바우처’ 사용 기관을 본격 모집한다. 시는 최근 바우처 등록을 희망하는 평생학습 교육기관 120여곳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나주애배움바우처는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폭넓고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 15만원의 학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만19세 이상 시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한 당일 현장 등록지원 및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나주시는 설명회를 기점으로 보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 지원을 위해 사용 기관 모집에 본격 나선다. 사용 기관 등록은 연중 수시로 하지만 오는 7월 14일까지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나주애 배움바우처 설명회를 기점으로 시민이 보다 폭넓고 다양한 기관에서 배움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사용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등록 조건은 관내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바우처 카드로 수강료 결제가 가능한 기관이다. 단 골프·당구·볼링 등 오락성 분야, 운전면허·보습학원·과외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은 제외된다. 사용기관 등록은 나주시평생학습정보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 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와 업체·업종이 교육서비스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교육기관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김동철 기자

영광군 상반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확정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외식환경 개선사업인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 벗고 나섰다. 본 사업은 장기간의 코로나 시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외식 영업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고, 나아가 변화하는 외식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군민 맞춤형 시책이다.



화순군(화순군수 구복규)은 최근 능주 들소리보존회원과 지역 주민, 관광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주면 소재지 일원과 능주 들판·능주 역사관에서 대동 한마당으로 풍년 기원 ‘능주 들소리’ 민속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48개소 음식점에 테이블 교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그동안 부족한 재원으로 영업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었기에 올해 총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은 한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입식테이블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군민과 이용객의 외식문화 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나 음식점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영광군의 외식문화의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스포츠산업과 위생팀(061-350-5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률 기자

화순군, 능주 들판서 풍년 기원 ‘능주 들소리’

화순군(화순군수 구복규)은 최근 능주 들소리보존회원과 지역 주민, 관광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주면 소재지 일원과 능주 들판·능주 역사관에서 대동 한마당으로 풍년 기원 ‘능주 들소리’ 민속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 능주면 마을 깃발을 앞세운 능주 농악대가 능주면 복지회관을 출발해 면 소재지를 길놀이 할 때는 거

리로나온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모내기 공연은 능주농협 로컬푸드 옆 논에서 논 고사 후 주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면서 흥겨운 모내기 상사 소리와 함께 공연을 펼쳤다. 특히 이날은 나주 동강 봉추 들노래보존회가 참가해 나주지역의 들노래를 찬조 공연하면서, 영산강 유역 평야 지대의 들소리를 매개로 보존회끼리 서로 연대하는 유

의미한 모습을 선보였다. 한편 능주 들소리는 화순군 향토 문화유산 제65호로 지정돼 화순을 대표하는 무형유산이다. 특히 능주 들소리는 지난해 전남 민속예술축제에서 화순군 대표로 참가해 대상을 받았고, 2024년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권을 획득해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은 종목이다. /이문수 기자

담양군, ‘에너지효율·친환경대상’서 수상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2023년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에서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은 에너지지정제신문 주관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기후변화 등 친환경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담양군은 탄소 흡수원 확충사업, 전기차 보급,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투자, 종이팩 화장지로 교환운동 등 탄소배출량 감소에 적극 나선 점을 인정받았다. 군은 지난해 총 32억 1천700만 원을 지원해 전기차 승용차 140대, 화물차 67대, 이륜차 31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급속 충전소는 30기씩 해마다 지속 확대했다. 탄소포인트 제도 활성화도 추진했다. 지난해 말까지 담양군 전체

세대 중 27%인 6,749세대가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했다. 탄소포인트 제도란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만큼 보상을 주는 제도다. 담양군 내 4천860세대가 지난해 총 3억4천600만 원을 탄소포인트 제도로 보상받았다. 아울러 군은 ‘담양호 체류형 생태 체험장’을 49억 원을 투입해 생태 단지로 육성했다. 담양하천습지에는 총 10억 원을 투입해 조류관찰대 설치, 배수로 물길 복원, 습지훼손 지형복원 등을 했다. 1가구당 해마다 3그루 나무 심기 운동도 전개했다. 이외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총 35억 원을 투자,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담양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장성진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곡성여행
검색

2017년 곡성군 자연경관인형관광명소 수상작